

대기업 직원 절반 '호봉급' 생산직은 85% 육박 '대세'

주요 대기업 직원의 절반 이상은 근속연수가 기준이 되는 호봉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600대 기업(금융권 제외) 중 종업원수가 300인 이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체계 현황을 조사하고 10일 발표했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 170곳의 근로자(정규직) 39만8915명 중 51.2%는 기본급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임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는 '호봉급'이 84.7%, 50.0%로 대세였다. 근로자의 26.9%는평사원급에서 관리직급으로 승진하면 임금체계를 전과 달리 적용받았다. 이들 중 평사원급은 모두 호봉제를 받았고 관리직급은 71.4%가 직능급 체계였다. 기업들의 절반은 현행 임금체계에서 성과가 달라도 보상 수준이 비슷해 무임승차자가 발생한다고 지

폈었다. '호봉급'은 현재 주요 대기업 근로자의 절반이 적용받지만 모든 직종에서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대기업 170개사 중 호봉급이 있는 곳은 119개사였다. 이들 기업은 호봉급에 따른 문제점으로 '장기근속자 고용 유지 부담(42.9%)', '근로자의 성과 관리 어려움(36.1%)', '경기변화에 능동적 대응 어려움(11.8%)' 등을 꼽았다.

호봉급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로는 '기존 관행상(39.5%)', '노조의 호봉급 폐지 반대(31.1%)', '호봉급을 대신할 대안 부재(17.6%)' 순이었다.

매출액 600대 기업 중 300인 이상대기업 임금체계 현황조사
대기업근로자 호봉급 51.2% 직능급 36.2% 직무급 4.4% 순
중점사항 '성과중심 보상 확대'... '사회적 공감대 확산 기대'

금이 매년 오르는 '호봉급'을 적용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수행 능력에 따른 '직능급'을 받는 근로자는 36.2%, 직무 성격 및 난이도에 따른 '직무급'을 받는 근로자는 4.4%로 조사됐다. 직종별 기본급 유형을 보면 사무직과 연구직에서는 '직능급'이 각각 61.2%, 54.0%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적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임금체계 관련 중점 추진 사항으로 58.8%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확대'라고 응답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 체계가 나아갈 방향으로 사무직과 연구직은 '직무급'(모두 54.1%)을,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은 '직능급'(각각 39.4%, 42.4%)을 가장 많이

정부가 중점 추진할 사항으로는 '공공부문 임금체계의 선도적 개편(34.1%)'을 꼽았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 근로자의 절반이 호봉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외 우수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능력·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제로 전환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핵심과제로 포함한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조속히 추진돼 사회적 공감대가 빨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스

농진청 "새싹 '삼(蔘)' 바르면 눈가 주름 개선"

안 바르는 대조군보다 4주 후 9.6% 주름 감소

새싹 삼(蔘)이 눈가의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임상실험 결과로 입증됐다.

농촌진흥청은 30~40대 여성 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삼의 주름 지수 감소' 임상실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새싹 삼 잎과 줄기의 발효 추출물을 넣은 크림 제품을 눈가에 바른 후 의료기기를 이용해 주름을 측정할 결과, 아무 것도 바르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2주 후 5.28%, 4주 후에는 9.62% 주름이 감소했다.

임상실험 대상자 32명 모두 피부에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고 임상실험 제품이 '무자극 물질로 안전하다'는 피부 전문가들의 판단도 받았다.

임상실험 대상자들도 대체로 새

싹 삼 추출물 제품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매끄러움' 항목에서 80%가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끈적거림 정도를 나타내는 '점도와 촉촉함', '윤기증가' 항목에서도 70% 이상 만족도를 보였다.

농진청은 앞선 연구에서 새싹 삼을 발효해 사포닌 3종을 대량 증가시키는데 성공했다.

이 사포닌이 자외선 자극에 의해 생기는 검은색 또는 갈색의 멜라닌 생성을 막아 미백 효과는 물론 주름 개선과 피부 탄력에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당시 새싹 삼 발효 후 주름 역제율이 발효 전보다 3배 높게 나타났고 잎과 줄기 발효율이 폴리페놀을 58% 더 만들어 냈다.

농진청은 새싹 삼을 화장품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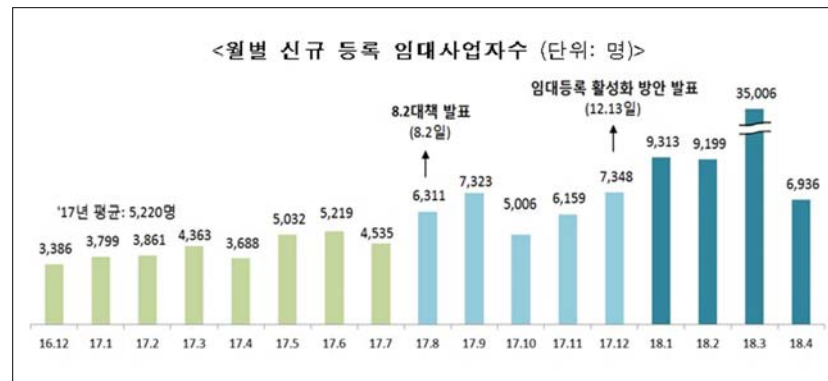


재료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추진 중이다.

김동휘 농진청 인삼특작이용팀장은 "인삼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새싹 삼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기능성 식·의약품과 화장품 소재로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임대사업자 6938명 등록...전년비 2배 ↑

8년 준공공임대, 3월 37.9%→4월 69.5%로 증가



지난 4월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년동월 대비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간 전년동월 대비 1.9배 증가한 693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4월에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69.5%를 차지해 지난 달(37.9%) 보다 크게 늘어났다.

지난달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6938명)는 전년 동월(3688명)에 비해 1.9배나 증가했으며, 전년 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1.3배 증가했다.

4월 등록 임대사업자를 지역별로

준공공임대주택이 69.5%를 차지해 전월 37.9%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양도소득세 증가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4월부터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으로 전환되면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시(6082채), 경기도(4898채)가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73.7%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4구(3224채)가 등록실적의 53%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월에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일부 조정됐음에도, 4월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예년 평균 대비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정상부과가 예정된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세·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경감되는 점, 8년 이상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50~70%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대의무기간별(단기 4년/ 준공공 8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뉴스스

롯데제과, '쥬스바·스크류바·수박바' 바디케어 출시

립밤·스크림·선크림·선스틱·수딩젤 등 총 9종



롯데제과는 10일 토털 바디케어 브랜드 해피바스와 손잡고 쥬스바, 스크류바, 수박바(쥬크바) 콘

셉트의 바디케어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쥬크바는 작년부터 컵, 치어팩

등 새로운 포장 형태로 선보이거나 껌, 캔디, 젤리, 의류 등 새로운 제품으로 출시한 바 있다.

이번 제품은 립밤, 스크림, 선크림, 선스틱, 수딩젤 등 총 9종이다. 롯데제과 측은 쥬크바 특유의 과일 향을 그대로 살렸으며, 포장 디자인도 각 브랜드의 캐릭터로 재구성해 재미를 준다고 했다. 스크림, 수딩젤 제품은 아이스크림에서 착안해 투명한 치어팩 케이스에 담았다.

제품은 전국 올리브영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오는 21일부터는 아모레퍼시픽몰 웹사이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롯데제과는 제품출시를 기념해 쥬크바 밍과 제품을 사고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바디케어 제품을 증정하는 등 SNS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